

## 주의 공현 대축일

제 1 독서: 이사 60, 1-6  
제 2 독서: 에페 3, 2-3 a, 5-6  
복 음: 마태 2, 1-12

## 순정이

"그들은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일드려 경배하였고  
보물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마태 2, 11).

## 강론

## “주의 공현은?”

한 병헌 신부/중앙 천주교회

공현이란 '나타남, 나타내어 보여줌'의 뜻을 가지며,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며, 하느님의 아드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림을 말합니다.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은 이교도들에게까지 알려졌으며, 동방 박사 세 사람에게도 알려져 베들레헴까지 방문을 오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를 기념하여 주의 공현 대축일로 지내왔습니다.

교회 전례에서는 이 축일에 예수님의 생애 중 세 가지의 중요한 신비를 기념합니다. 첫째, 교회의 전례 이 신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자신을 참된 하느님의 아들로, 참된 사람의 아들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둘째, 예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느님의 아들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과 셋째, 가나안 혼인 잔치의 기적에서 예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인간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하느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묵상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민중들이 바라고 꿈꾸었던 하느님 나라의 도래와 구세주의 탄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중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구세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곧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은 새날을 갈망하고 있던 민중들에게 힘차게 울려 퍼지는 꿈과 희망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로써 아기 예수의 탄생은 폭정과 억압 속에서 민중들이 간절히 열원하던 자유와 해방, 평등과 평화를 위해 나타나기를 고대했던 그 시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그 탄생은 민중들의 회한과 희망을 한 몸 안은 것이었습니다.

교형 자매 여러분!

주의 공현을 맞는 오늘의 이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주의 공현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무슨 의미를 부여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주의 공현은 불안해 하고 어둠 속에서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찬연한 한 줄기 빛이며,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의 공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해방, 평등과 정의를 갈구하고 체험하도록 합시다. 아멘.

## 소리

## “왜 우리가 물어야 하나?”

6공이 과잉 민주화를 추진하고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피해자 보상금 성금 명목으로 1월분 공무원 봉급에서 1%씩을 떼고 기업체들에게도 모금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뒤를리는 심사를 가하기 힘들었다.

한마디로 광주 보상금은 마땅히 전액을 국고에서 지급해야 한다. 그 보상금은 강제 배당이나 구결로 마련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이 마련될 경우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모독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광주 민중 항쟁을 도발한 것은 5공 창출자이며 6공은 바로 5공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6공은 도의적으로도 광주 보상을 애꿎은 공무원이나 기업가들에게 전가할 입장에 있지 않다. 더구나 광주 보상액의 50%가량을 끝내 강제모금이나 강제성이 동반된 성금으로 마련한다면 지역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큼을 당국은 직시해야 한다.

그같은 모금 방침이 전해지자 부산 지역의 한 기업인은 “우리가 왜 광주 희생자의 보상금을 물어야 하는가?” “관계 당국에서 내라고 해도 결코 내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것을 봐서도 이같은 우려가 기우가 아님이 분명하다. 정부 당국이 예측을 못한 채 결정한 방침이라고 믿고 싶지만 특히 비호남권 공무원이나 기업인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을 짐스럽게 여길 것이고 본의 아니게 이를 부담하면서 광주 나아가서는 호남에 대해 개운치 않은 느낌, 혐오감까지 품게 될 우려가 크다.

신미년 새해를 맞아 모두에게 기쁜 일이 많아지길 기원하며 새해가 화해의 해가 되도록 집권층은 상처받은 마음들을 달래주는 바른 정치를 펴도록 당부하고자 한다. [진]

## 순정이 신책



협조합니다.



## “평화를 원하면 모든 사람의 양심을 존중하라”

-1991년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 교황 담화문 요지-

오늘날 하나의 인류 가족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모든 인간 자유의 본질이 되는 양심의 자유가 실천으로 인정되고 법률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점차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인간들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양심을 존중하여야 할 중요성에 관하여 숙고하고자 합니다.

1. 양심의 자유와 평화: 그 어떠한 인간적인 권위도 인간의 양심에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바로 이 개인 양심의 완전한 자유-특별히 진리 추구의 자유-를 부정하거나 또는 진리 인식의 특정한 방식을 강요하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적인 권리들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적개심과 갈등을 더욱 악화시켜 사회 내의 긴장 내지 적대 관계로 쉽게 이어지거나 심지어는 공공연한 분쟁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확고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어려운 과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바로 양심의 차원입니다.

2. 절대 진리는 오직 하느님 안에서 발견된다: 진리 추구와 하느님 추구는 하나요 동일한 것입니다. 즉 진리는 비신앙인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3. 양심의 형성: 모든 사람의 양심은 객관적인 진리의 빛 안에서 형성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세겨주신 법과 진리에 따라 자기 양심을 형성해야 하는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의 한정된 개인적 의견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올바른 양심 형성의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가정입니다. 또 학교, 종교, 여러 홍보 매체가 양심 형성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를 직시하고 이들의 효과적 활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4. 불용(不容): 불용은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수용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록 종교적 측면에서라도 그 누구에게도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심한 분쟁을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다른 사람들에게 특정한 종교적 관념을 강요하려는 시도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법과 시민법의 동일시는 종교의 자유를 절식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불가양의 다른 인권들을 제한하거나 부정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권리가 공공 질서의 요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양심의 자유는 올바르게 이해되는 한,

그 본질상 언제나 진리를 향해 정향되어 있으므로 결코 불용에 이를 순 없으며 관용과 화해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5. 종교 자유는 평화를 위한 힘: 종교의 자유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인권 구조의 모퉁이들입니다. 따라서 이는 양심의 자유를 드러내는 가장 근본적인 표현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종교는 해방의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거나 분쇄해버리려는 온갖 시도는 공개적 또는 잠재적 반항에 기름을 끼얹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6. 정의로운 법 질서의 요구: 따라서 이 종교 자유를 목적으로 한 새롭고도 효과적인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의 법 질서를 확인하려는 노력의 색인은 참으로 가치있는 일입니다. 역사의 바로 이 순간, 정치 사회 생활의 영역에서 양심의 자유를 증진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저는 공적인 책임을 지닌 모든 사람들에게-국가, 행정수반, 입법자, 사법관, 기타 공직자들-특별하고도 절박한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자기 관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닌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십시오.

7. 다원주의 사회와 세계: 한 나라가 서로 다른 전통과 관습, 생활 양식과 의무를 존중하면서도 그 고유한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마땅히 존중하도록 하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개방성으로 진리 추구에 수반되는 관용과 연대 정신 안에서 자기 구성원들의 양심 형성을 통하여 나름대로 이러한 협력을 끊임없이 공헌하고자 합니다.

8. 양심과 그리스도인: 진리 추구에 있어 자기 자신의 양심을 따라야 하는 의무에 직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기 개인의 도덕적 분별력만을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양심 즉 자연법으로서의 계시와 함께 성서 안에서의 계시를 또한 받아들이던 것입니다. 완전한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따라 양심을 형성해야 할 의무를 느껴야 합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하며 함께 진리를 추구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평화로 나아가는 자유의 길을 전진할 수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1990년 12월 8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 원아 모집

대상: 0세~5세  
시간: 오전 8시30분~오후 6시30분  
장소: 전주시 전통 풍남문 앞  
김진아(이거니)  
이순자(글리리)  
잼잼아가놀이방  
☎ 82-9737

### 태화신발백화점

신사와·숙녀화(총판매장(공정직영))  
아동화·특수화  
김문식(베드로)  
☎ 82-3118  
봉남문, 호리, 송악로 시거리

### 수의 전문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바랍니다.  
서신동 천주교회 애령회  
☎ 74-9260, 77-1392  
조인국(엘리아)  
이정금(모니카)

### 신부 부케 전문점

진선미꽃집  
이마리아  
법 디도  
☎ 84-2628



잡 관 /

“새해의 기도”

오늘은 주의 공현 대축일!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꿇어 앉은 동방의 세 현인들을 보고 있노라면 故 최민순 신부님의 유시가 생각난다.

“받으시옵소서/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아니라도

여기 육신이 있습니다/영혼이 있습니다.

본시 없던 나/손수 지어 있게 하시고

죽었던 나 몸소 살려주셨으니/받으시옵소서

넘으로 말미암은 이 목숨/이 사랑

오직 당신 것이오니/도로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태어나신 그분께 이것저것 많이 챙겨드리고 싶지만 때론 영혼과 어느 새 병들기 시작한 몸뚱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러나 필요하시다면 그나마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싶다. 남께서 필요한 곳에, 남께서 필요한 방법으로...

‘주여! 주께 받은 이 몸, 주께 도로 드리오니 당신 뜻대로 하소서! 내 운명! 내 미래!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소서. 올 한해 내 처지가 어떤 처지이든 그저 감사드릴 것이읍니다.’ **관**

교 구 소 식

※ 중·고생 영화 ‘고백의 비밀’ 10일(목) 오후2시, 어린이 영화 ‘별거벗은 임금님’ 11일(금) 10시, 오후2시 장소-가톨릭센터.

1. 참사회: 1월8일(화) 오전10시30분 교구청 회의실.
  2. 본당 사무장·사무원 피정: 1월15일(화)~16일(수) 천호 피정의 집.
  3. M. B. W. (복음화 과정): 1월7일~9일 천호 피정의 집 회비-35,000원, 7일 선타 집결 오전9시 대절 버스 출발.
  4. 남성 37차 꾸르실료: 1월10일~13일 천호 피정의 집(여성 33차 1월28일~31일로 변경, 남성 38차 2월21일~24일로 변경).
  5. 전주 제6차 선택: 1월25일~27일 천호 피정의 집. 대상-미혼 젊은이, 회비-25,000원 접수·문의-교육국(85-0041).
  6. 전복일보 천주교 고정란(7면) ‘성당의 종소리’ 안내: 7일(월)-현대 한국과 가난(정인섭 선생), 9일(수)-인간의 가치(최용준 신부), 12일(토)-그리스도인과 양심(홍보국).
  7. 사회복지회 ‘사람의 다리’ 월례미사: 1월7일(월) 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미사-이병호주교.
  8. 주소 변경(김영일 신부): 전주시 효자동 1가 637번지 남양 황제 맨션 3동 303호.
  9. 가톨릭교리신학원 신학통신교육부 신입생 모집: 기간-2년 서류-입학원서, 사진3매,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접수-1월17일~2월2일, 문의 (02) 745-8339.
- 성마모수수도회 성소피정: 1월24일~27일 본원 회비-5,000원 19일까지 접수. 27세 미만의 미혼 남성 (02) 989-4954.
- 성령선교수녀회 성소모임: 1월13일 오후2시 본원 (02) 764-4750.

자녀와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대기오염의 주범, 무연탄—

겨울, 난방 연료를 많이 쓰는 계절입니다. 특히 연탄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가 대기오염의 주범. 아무렇게나 버려진 연탄재들,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한일합성 상설 할인 매장

(세진느, 제노바, 윈디 전주점)  
이 강 현 (비 오 로)  
서 금 순 (세살리아)  
전통 코오롱 쇼룸 2층  
☎ 소필 82-2992  
자택 83-4375

축 / 개 업

진선미 웨딩드레스

가장 우아하고 세련된 웨딩드레스  
맞춤 판매 대여 부케  
패백 의상 연주복 신부화장  
아리시 목화예식장 옆  
☎ 52-1187  
정기연 (지평로), 황인덕 (1122)

동판공예 수강생 모집

수시 접수  
직 장 인 환영  
인공 주력은령 윤. 언덕다방 3층  
☎ 88-5044  
이 미 숙 (테레사)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십이 (909) 김병오



관다예 미술 학원

91년도 원 아 모집  
국교부 수강생 모집  
원장 박 경 화 (마리아)  
방문, 전화 상담 환영  
효자동 ☎ 223-8355

겨울방학은 컴퓨터와 함께

한누리컴퓨터

김 창 영 (모인교)  
☎ 252-1698  
덕진 성당 뒤  
뜻깊은 성탄 선물은 컴퓨터로

으뜸 속셈 학원

겨울방학 특별 강좌:  
유치부·초등부·중등부  
정성껏 지도해드리겠습니다.  
서서학동 영창맨션상가 2층  
김명옥 (아네스)  
김석남 (마리아 막달레나)  
☎ 85-1652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 ※ 성탄 장식 제거 : 오늘 미사 후 청년회, 사목회 수고 바람.
1. 성탄 세례자(노엘) 피정 : 13일 전9시30분, 피비-3,000원.
  2. 성가대 총회 : 8일 어머니 미사 후 신임위원 대 환영함.
  3. 사목회 상임 위원회 : 10일 후8시(교리실) 새해 계획 검토.
  4. 남성 푸르실로 37차 강습 : 10~13 김계수, 이영관, 노광용.
  5. 모임 : 성심회 월례회-8일 어머니 미사 후, 기도회-목요일 7시 30분, ME나눔 3팀-10일 후8시(전순오 부부).
  6. 혼배미사 : 13일 12시, 신랑-최경호(요셉) 신부-이정옥(아나다시아).
  7. 탈상미사 : 13일 후5시 다리리 이길수(아고보) 모친.
  8. 금주 청소 : 중노2가 11, 12번, 차주-중노2가 13, 14번.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한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 별 군

1. 사목회 : 6일 저녁미사 후.
2. 울드레아 : 8일 저녁미사 후.
3. 밀알회 : 9일 18시30분 신·구 입원교제, 회장-오덕순, 총무-김인숙 수고하시겠습니까. 이주자 씨, 노준덕 씨 수고하시겠습니까.
4. 제대회 : 10일 오전10시.
5. 여성분과회 : 12일 오전10시.
6. 뿌리아 : 13일 오후2시.
7. 청년회 : 13일 저녁미사 후.
8. 요셉회 : 13일 공식미사 후.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 종 석

- ※ 올해도 주님의 평화가 모든 가정에 풍성하시길 빕니다 : 사목회.
1. 오늘은 주의 공현 대축일입니다.
  2. 뿌리아 : 공식미사 후.
  3. 청년회, 성가대 :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교무금 납부의 날 : 매월 첫주(오늘) 월납제 지켜 본당 운영에 힘입기 바랍니다.
  5. 금주 전례 : 해설-김영신 독서①양주태 ②이석남  
봉헌-이수복, 박귀철 씨 부부  
차주 전례 : 해설-김경재 독서①이옥동 ②김금자  
봉헌-양재철, 양귀환 씨 부부
  6. 감사 : 제대꽃 봉헌-최상옥, 현복선, 소근호-2구과 이순이, 김매자, 김봉업, 이옥동-1구과.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용

- ※ 오늘은 주의 공현대축일!
1. 회회 : ① 사목회-1월9일(수) 저녁미사 후 ② 자모회-1월9일(수) 오전10시30분 ③ 반장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모임 : ① 전배부-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② 울드레아-다음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
  3. 알릴 : ① 교무금-교무금미납자는 빠른 시일 내에 완납바라며 91년도 교무금 미납자는 사무실에 신임해주세요. ② 성당 내에 있는 모든 물건은 우리본당의 자산이므로 우리 모든 신자들의 것이오니 내 물건처럼 귀중히 여기시어 아껴써야 하겠습니다.
  4. 감사 : 금년 성탄준비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 성탄축일 헌금 : 927,560원 □ 교무금 : 499,000원

\* 용머리 사제관 84-8123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한

1. 뿌리아 : 공식미사 후.
2. 혼배미사 : 신랑-박용화(베드로), 신부-김명숙(안토니아) : 오후1시30분, 축하드립니다.
3. 국민학교 3학년 이상 어린이 영세식 및 첫영성체 : 12일(토) 3시미사 중.
4. M. B. W. 현대복음화 과정 : 1월7·8·9일(천호피정의 집).
5. 12월 영세자, 혼배자 사진 찾아가십시오.
6. 신자들을 위한 교리강좌 : 토요일 오후7시30분(새영세자 참석바람).
7. 청소봉사 : 서완산동1가 동원.

##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 종 출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독 수

- ※ 성전보수헌금 바람.
1. 재속 글라라 협제회 : 오늘 오후1시30분.
  2. 구역봉사자 모임 : 오늘 저녁7시.
  3. 반 기도회 : 8일부터 11일까지 구역별로 실시바람.
  4. 병자방문 : 1월11일. 5. 본보소교회 : 9일(수) 저녁7시.
  6. 유아세례 : 12일(토) 오후3시.
  7. 홀 데레사 수녀님 피정 : 7일~17일까지.
  8. 자모회 : 다음주 오전10시.
  9. 사목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10. 91년도 교무금 미납입세대는 속히 신임바람.
  11.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방준철(요셉), 앞으로 수고하시겠습니까 : 정순태(다두) 두 분위해 기도바랍니다.
- 성탄헌금 : 3,011,57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박 병 준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 광 한

- ※ 오늘은 주의 공현 대축일입니다. \* 사목회 임원구성 : 구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원님 수고하시겠습니까. 명단-알림란 참조. \* 교적정리 : 이사온 신자(구역변경)는 사무실에 알려주시고 전신자 세대주는 가족사진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번주부터는 성전신축을 위하여 매주일 미사시 2차 헌금이 실시되었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자모회 : 8일(화) 오전10시30분. 2. 성심회 : 9일(수) 오후2시. 3. 제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금주 전례 : 강상근 복사-최 순, 오수환 봉헌-강상근 부부. 차주 전례 : 문치구 복사-박병환, 서영삼 봉헌-한영수 부부.
  5. 성체조배 : 1월7일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 일주
- 91년도 교무금 신임과 성전신축 2차 신임바랍니다.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 영 근

1. 자모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사목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성모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 금주 전례 : 해설-장병순 독서·봉헌-김종호 부부  
차주 전례 : 해설-한병갑 독서·봉헌-김홍무 부부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종 현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김 태 한  
사목회장 황 수 석

## \* 효자동

- ※ 오늘은 주의 공현대축일입니다. 새해에는 주님과 함께 복 많이 받으시길 빌며 본당사목에 모일한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1. 안나회 : 오늘 11시미사 후.
  2. 글라라회 : 9일(수) 11시.
  3. 울드레아 : 다음주 11시 미사 후.
  4. 본당주소록 제작 : 상호 광고하실 분 사무실에 접수 바랍니다.
  5. 교무금 : 미납된 교무금 완납해주시고 신년도 교무금 신임바랍니다.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함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흥 투

1. 자언건강법 강의 : 공식미사 후.
  2. 사목회 : 저녁미사 후. 3. 뿌리아 : 공식미사 후.
  4. 제대회 : 10(목) 10시 미사 후. 5. 성모회, 자모회 : 11(금) 10시미사 후.
  6. 특별공소미사 : 11(금) 오후2시, 이서공소 오후7:00.
  7. 차주 모임 : 울드레아.
- 신축헌금 총신입액 : 64,350,000원 봉헌액 : 1,868,000원.  
금주 전례 : 해설-강진상 독서① 박성수 ② 장덕자  
기도-박명래, 이영자.  
차주 전례 : 해설-임창수 독서① 최재준 ② 김동희  
기도-송대식, 윤길영